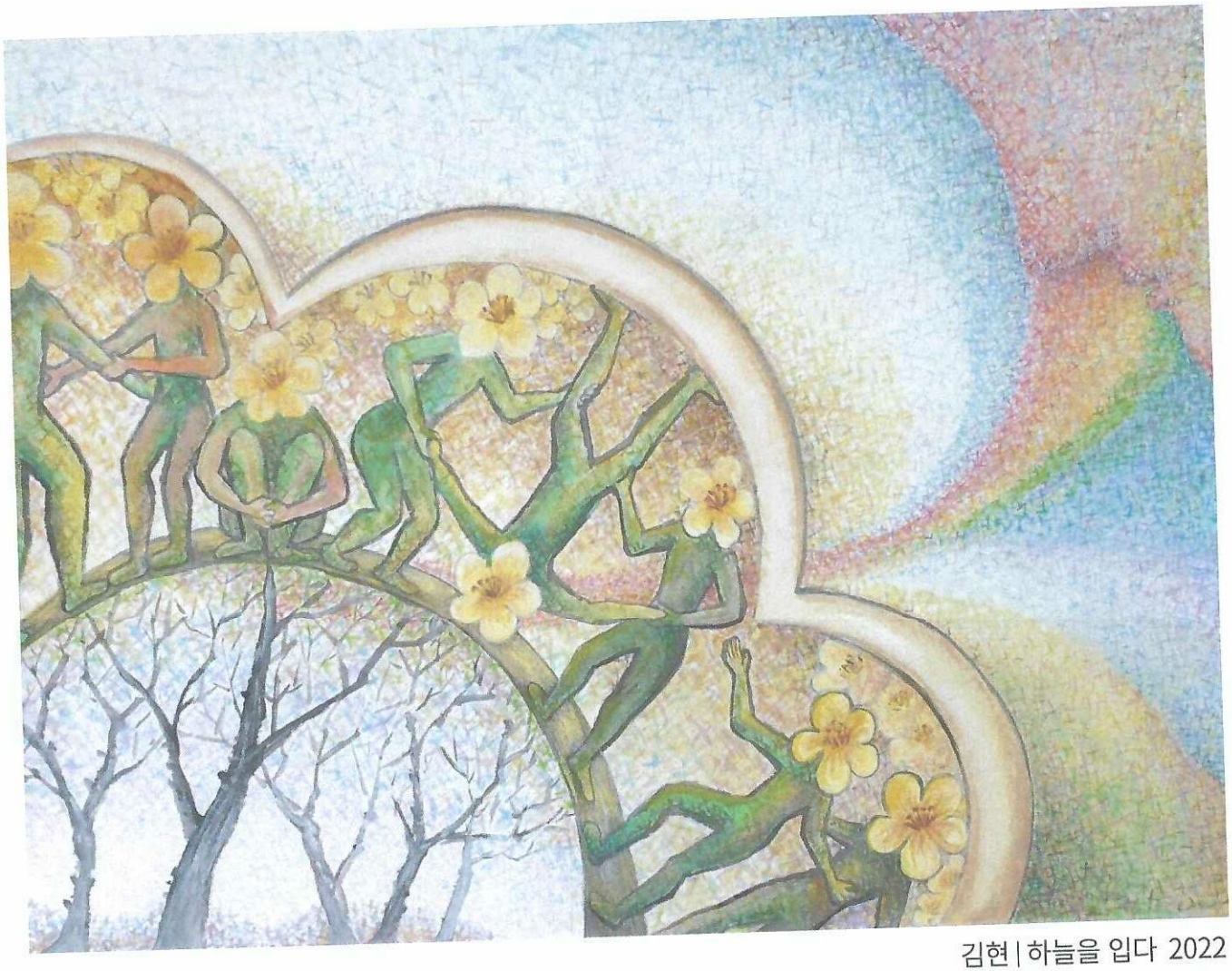
제 2 호
2024. 10.

그날, 이후



김현 | 하늘을 입다 2022

공법단체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서울특별시지부



발행일 | 2024년 10월
발행인 | 강 원
발 행 처 | 공법단체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서울지부
편집위원 | 김 현, 류동인, 박두리, 박재영, 이강민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아시아
첫 여성작가
한강

- 5·18민주유공자유족회원 일동 -

한강 작가는 전남 장흥에서 출생하여 연세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부친 한승원 (원로 문인)의 영향을 받아 글을 쓰기 시작했다. '채식주의자'(2016), '소년이 온다'(2014), '작별하지 않는다'(2021) 등 수상 경력이 많다.

창비에서 출간한 「소년이 온다」는 그 줄거리가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열흘간의 상황과 그 이후 남겨진 이야기를 6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중학교 3학년인 동호가 계엄군의 총에 의해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의 친구 정대의 죽음을 목격하고, 도청 상무관에서 시신 관리를 하면서 최후까지 항쟁하는 모습과 그 가족들의 비극을 생생하게 서술했다.' 현대사의 크나큰 비극을 독특한 서사적 시각으로 표현한 훌륭한 작품이다. <편집자>

우리들의 딜레마(dilemma)

머리글



서울지부장 강 원

· 前대학장/경영학 박사
· 제20대 국회의원 출마
· 한국폴리텍성남대 학장
· 서울대학교IT아카데미위원장
· 제7기 정부공익사업선정위원
· 서울노원구공직자윤리위원장
· 한국IT기업연합회상근부회장
· 중소기업중앙회KBIZ상임감사
· 사단법인동물사랑봉사회회장

우리는 살면서 많은 딜레마에 봉착한다. 정직과 친절 사이에서 도덕적인 갈등에 직면하고, 경제적 안정과 자신의 꿈 추구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기도 한다. 또한 개인의 성장과 주변과의 관계유지에서 번민에 이르기도 하며, 직장과 개인 생활의 균형에서 선택의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공동체의 소속감과 자신만을 위한 독립적 개성 유지를 위한 갈등과 맞서기도 한다.

이러한 끊임없는 갈림길의 딜레마에 대해 우리는 학습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곧바로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을 해야 하는 생의 항로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그 선택과 결단은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한다. 그러므로 유한한 우리 인생에서 실패를 줄이고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딜레마를 빨리 벗어나고 시행착오를 줄여 행복한 길을 찾아 힘차게 달려가야 한다.

그렇다면 딜레마에 봉착하였을 때 최선의 빠른 선택을 위해서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 판단의 기준을 갖고 삶을 살아가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 (→ 우리 인간의 딜레마)

사회학자 미국의 미시간대 '로버트 엑셀로드' 교수는 저서 「협동의 진화」 의 한 Chapter에서 '게임이론과 컴퓨터 시뮬레이션' 을 사용하여 인간의 협력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지를 '**죄수의 딜레마 게임**' 을 통해서 설명하였다. 그 게임의 결과와 분석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조건

▸ 당신과 당신의 공범자가 범죄 혐의로 체포되어 각자 다른 감방에 갇혀 있다. 검사가 두 사람에게 똑같은 제안을 했다. 〈poly-bargain〉

- 만일 당신이 유죄를 자백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공범자에게 유죄판결을 내리기 쉽도록 협조한다면, 당신을 무죄로 해주겠다.
- 보복은 두려워 말라. 공범자는 **5년**을 감옥에서 썩을 테니까.

상황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정황증거가 충분하므로 모두 **1년**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둘 다 유죄를 인정하면 똑 같이 **4년 형**을 선고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사람이 내릴 결정이 죄수의 **딜레마 게임**의 핵심이다.

「1979년 미국의 사회이론가 로버트 엑셀로드는 '죄수의 딜레마 문제를 하나의 게임으로 생각하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게임을 하여 승부를 가리는 리그 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이 '죄수의 딜레마'에 대응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출품하면, 그 프로그램들을 각각 하나의 **죄수**로 간주하여 짝을 지어 서로 200번 게임을 했다. 이렇게 한 쌍의 게임이 끝나면 다시 다른 프로그램과 짝을 지어 200번 게임을 하는 식으로 모든 프로그램들이 한 번씩 서로 겨룬다. 그리고 그 결과 각각의 프로그램이 받은 수감 기간을 합하여, 가장 짧은 수감 기간을 얻어내는 프로그램이 승리하는 가상 게임이었다.」

○ 게임의 결과는 1차, 2차 대회 모두에서 최후의 승리자는 **'Tit For Tat'** 이라는 가장 짧고 간단한 프로그램이었다. 'Tit For Tat'은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심리학자인 Anatol Rapport 교수가 만든 간단한 프로그램이었다.

– **'Tit For Tat'** 은 원래 **'보복'** 또는 **'이에는 이'** 라는 뜻을 가졌다. 즉, "받는 대로 되돌려 준다" 라는 원칙이다. 그러니까 'Tit For Tat'의 전략은 상대가 나를 배려하여 이익을 주면 나도 상대를 배려하여 이익을 주고, 상대가 이기적이어서 손해를 주면 나도 이기적으로 대응하여 손해를 준다는 내용이다.

– 엑셀로드 교수는 참가 프로그램들이 사용하는 전략을 **'친절한 전략'**과 **'비열한 전략'**으로 구분했다. 비열한 전략이란 자신만을 생각하고 상대에게는 비협조적으로 대응하는 이기적 전략이고, 친절한 전략이란 자신과 상대를 함께 배려하거나 또는 순수하게 상대방만을 배려하는 이타적 태도를 취하는 전략이다.

– **'Tit For Tat'**은 친절한 전략으로 분류되었다. 왜냐하면 'Tit For Tat' 의 전략은, 처음에는 **이타적**으로 협조한다. 그리고 다음에는 상대편이 나에게 취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한다. 즉, **이기적으로 행동**한다.

– 게임의 결과를 종합하면, 친절한 전략을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좋은 성적을 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엑셀로드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도 친절하게 행위를 하는 사람이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행위를 하는 사람보다 삶에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결론을 얻어 낸 것이다. [→지속 가능한 선진사회]

○ 엑셀로드 교수의 **죄수의 딜레마 분석**

첫째, 친절한 전략은 상대를 배려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끼리 서로 만났을 경우 누가 이기든지 관계없이 서로 협조하여 결과적으로는 수감 기간을 줄이

더라는 것이다. 즉, **양측 모두 자백하지 않아 1년씩 형**을 받는다.

둘째, 비열한 전략들은 서로가 이기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이들이 만났을 경우, 서로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망치더라는 것이다. 즉, **양측 모두 자백을 하여 4년씩 형**을 받게 된다.

셋째, 친절한 전략과 비열한 전략이 교차했을 경우인데, 비열한 전략은 자백을 하고 친절한 전략은 자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친절한 전략이 손해를 본다. 즉, 비열한 전략은 곧바로 석방되고 **친절한 전략만 5년 형**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대회에서는 같은 상대와의 게임을 단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200번씩을 반복하여 실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Tit For Tat' 같이 상대방이 이기적인 행위를 할 때마다 곧바로 보복을 취하면, 셋째의 경우에도 처음 한 번만 손해를 볼 뿐 더 이상 손해를 보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더라는 것이다. 즉, 우리의 삶은 한번이 아니고 100년을 살아가야 하는 게임이다.

-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들이 뒤섞여 살아가고 있다. 만약, 착한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을 만나 손해를 보면서도 계속해서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그는 세상에서 손해만 보고 결국 실패하는 '어수룩한 사람'이다. 그리고 '어수룩한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익을 보고 성공을 하게 된다.
  - 이기적인 사람들이 보는 이익의 대부분은 어수룩한 사람들이 가져야 할 몫을 빼앗은 것이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들이 잘 살고 착한 사람들이 가난하게 되기도 한다. 특히 착한 사람들이 계속 손해를 보면서 **'어수룩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결국 이기적인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나쁜 사회를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 따라서 '어수룩한 사람'은 그 사람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도 결코 올바르게 사는 것이 아닌 것이다. **[→ 어수룩한 사회 = 미개발 사회]**

- **'Tit For Tat'** 전략이 단지 개인적으로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한 결과를 낳는다. 즉, 착한 사람들끼리는 서로 돕고 이기적인 사람들로부터 더 이상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은 인간사회의 정의이며 규범이다. **[시민의 활발한 비판의식 → 선진국 형 사회]**

공법단체의 딜레마

대한민국은 현재 17개 공법단체가 그 근거 법률에 의해 설립·운용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지면의 한정으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약칭: 독립유공자법)'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약칭: 5·18유공자법)'에 관한 사항만을 예시했다.

두 법률이 똑같이 제2조에 '예우의 기본 이념'을 두고 있는데, 「~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되어 있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함에도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도 개도국의 지위를 벗어나 명실공이 경제 선진국에 진입했다. 국가는 국력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할 시점이다.

○ 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기간을 늘려야 한다.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은 손자녀(3대)로 유족의 지위가 종결된다. 친일하며 독립운동을 방해한 친일파 후손들은 호의호식하고 그들이 횡재한 재산은 대대손손 이어받아 잘 살고 있다. 그런데 독립유공자는 3대, 그리고 5·18유공자는 2대까지만 유공자 유족으로서 예우를 받는다. 유공자에 대한 신분 유지 기간을 늘려야 한다. 독립유공자의 후손은 5대까지 그리고 5·18유공자의 후손은 3대까지는 예우를 해야 마땅하다.

관련 법률에 유공자 신분유지에 관한 사항은 없고 하위 규정인 시행령과 세칙에 규정하였다. 법률 개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다.

○ 공법단체 위상 및 운용에 대한 변화가 요구된다.

저는 2년 가까이 공법단체들의 운용 실태를 보면서 혼돈에 빠졌다.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공법단체의 본질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며, 사단법인의 틀을 벗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 또한 공법단체를 관변단체와 같이 보조금을 가지고 통제하고 장악하고자 하며 종속관계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국가와 사회가 어려웠던 시절에 어찌할 수 없이 공법단체가 정부에 의존하여 존속하여 왔다고 생각된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대접 받고 있으며 시민사회와 각 사회단체도 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공법단체 리더들도 정부와 동반자 관계에서 능동적이고 설립 취지와 걸맞는 혁신적인 활동을 해야 하며, 국가도 공법단체가 정부의 역할을 대행한다는 인식으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

법률에도 「'기념 · 추모사업의 추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5·18유공자법 제61조를 예시 했지만 대부분 공법단체의 근거법률이 명시하고 있다.)

현실과 이상은 항상 괴리가 있다. 그렇지만 "단호하지 못한 리더는 눈앞의 위협을 피하고자 중립의 길을 선택하지만 대부분 추락한다."는 510년 前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역설을 상기하고자 한다.

이제 공법단체의 리더들이 정부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이 다가갈 수 있도록 번민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우리 공법단체의 큰 딜레마가 아닌가 생각된다. 끝

서울지부 행사



총회(2.27.)



총회(2.27.)



2차운영위원회(6.15.)



2차운영위원회(6.15.)



간담회(7.12.)



간담회(7.12.)

서울지부 행사



세미나(8. 28.)



세미나(8. 28.)



전시회(8.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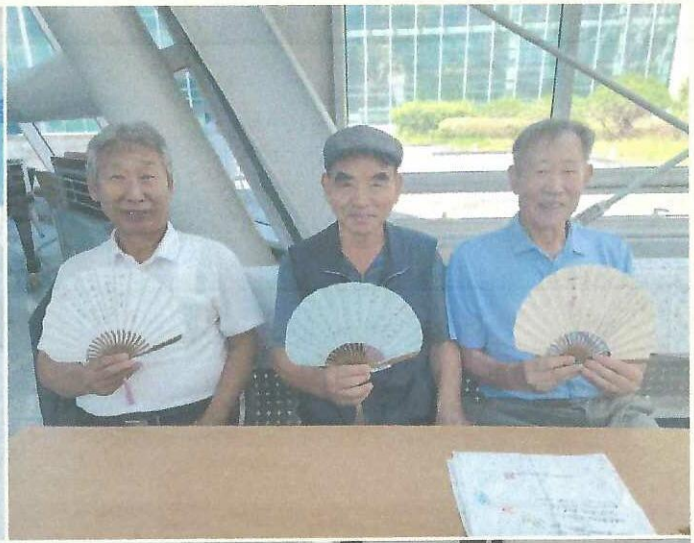


전시회(8. 28.)



마음나눔행사(5. 12.~9.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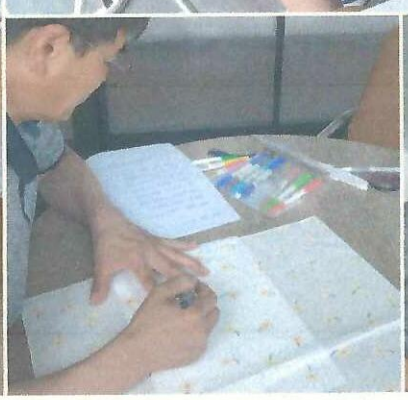














마음나눔행사(5.12.~9.4.)

서울지부 회원동정

봉지애 회원 자제 결혼식



박정식 희생자의 유족인 봉지애 회원은 멋진 아들을 결혼시켰다. 고 박정식님은 광주에서 아시아 예식장(마샬미용실)을 운영을 하다가 1994년 군포로 와서 산본에서 예식장을 경영하였다. 홀로 한 기쁜날에 '가슴의 빈 자리가 어떠셨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예쁘고 똑똑한 아나운서 딸 가족이 있기에 안심이 되었다. 봉지애 회원은 5·18 유가족이라는 자부심으로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다고 하였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메꿔주신 5·18민주유공자 유족회 서울지부 강원지부장님을 비롯한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하였다.(3월 23일)

박두리 회원 부군 이훈우 열사 이장식



故 이훈우님은 광주일고 서클 '광랑'을 중심으로 조직된 '민족사회연구소'에서 활동하였고 1982년 황석영, 김종률등과 함께 - 임을 위한 행진곡 - 테이프 제작을 하였다.

분실되었던 '임을 위한 행진곡'과 윤상원 열사·박기순의 영혼결혼식 노래극 '넋풀이' 원본 테이프를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에 2018년 5월에 기증하였다. 박두리 회원은 "고인이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고민 끝에 고인의 이장을 결정했고 함께 하신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하였다. (5월 12일)

신입회원 가입





충청남도 신입회원인 홍기원 님은 1985년 가톨릭 인권상과 1986년 대한변호사회 인권상, 1993년 군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은 홍남순 변호사의 장남입니다. (7월 11일)

류동인 회원 근황

참외로 유명한 경상북도 성주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80년 5월을 광주에서 겪고 아버지를 따라 이듬해 대구로 오게 되었습니다. 항쟁의 마지막 날 형님을 전남도청에서 떠나보냈고 운명적으로 유족이 되었습니다. 사랑했던 형, 군사정권의 부당함 등은 오랜시간 5월 광주에 대한 자긍심과 더불어 슬픔과 분노라는 깊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80년 이루어졌던 공동체의 힘을 발견하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타인의 어려움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였던 타자적 공동체입니다. 우리를 증오와 슬픔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는 긍정의 힘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 힘을 가지고 사드(THAAD)반대 투쟁에 함께했던 성주의 주민들과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별동네공동체' 상임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별동네 공동체에서 5·18진실알리기 특강 강연(강사: 정수만 전 유족회장)을 주최하였다.(5월 31일)



2023년 1월 31일 임은정 검사와 함께 북콘서트를 진행하였다. 왼쪽 마이크를 들고 진행하는 이가 류동인 회원입니다.



5·18을 넘어 대동사회(大同社會)로 가는 길

* 이 글은 지난 8월 유족회 서울시지부가 주관한 '5·18을 넘어 대동사회로 가는 길'의 세미나에서 최연성 총장대행(국립군산대학교)의 발제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1. 5·18은 선진화의 이념적 초석

우리나라 현대사를 보면 우리는 3번의 정신적 대분화(大噴火)가 있었다. 그 처음은 3·1운동이고, 두 번째는 4·19혁명이고, 3번째가 5·18 민주화운동이다. 세 번의 대분화는 그 이후 국가 대개조에 준하는 획기적인 발전을 유발했다. (중략...)

막강한 권력을 지닌 군부가 쿠데타로 집권하여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교란하고 역사를 퇴행시키는 사례는 세계사에서 꽤 많다. 시민들의 저항이 이어지지만, 큰 희생을 치르고도 민주주의를 안착시키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런데 5·18은 독재를 저지했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신장하고, 국가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정신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위대한 것이다.

5·18은 이후 6월 항쟁으로 이어지고 6공화국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5·18이 가져온 소득은 민주주의뿐만이 아니다. 그때를 시작으로 관치 경제에서 자유시장경제로 전환하였고,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다.

> "차가운 경제에서 따뜻한 경제로의 대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사회의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게 되었고, 강자나 주류를 위한 사회경제 시스템이 약자와 비주류를 배려하는 시스템으로 조정되었다. '차가운 경제'에서 '따뜻한 경제'로의 대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군부 정권 시절은 '고도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데모 같은 것 하지 말고 정국이 안정되어야 한다'가 정치적 캐치프레이즈의 단골 내용이었다. 그러나 경제성장 지표를 보면 정권 교체[1]가 오히려 경제를 크게 성장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중략...)

---

1) 1980년 이후 전두환(1인당 GDP $1,883, 1981년 집권)-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32,418, 2022년 집권)로 정권은 부단히 교체되었는데, 그 기간에 고도성장을 이루었다.

주요한 사회적 변곡점의 1인당 GDP

1960	1980	1996	2022
4·19 혁명	5·18 민주화	OECD 가입	post 코로나
$158	$1,715	$13,403	$32,418

2. 5·18정신과 대동사회

≪예기≫ 예운편은 대동사회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공자 가라사대 대도(大道)가 행해지는 세계에서는 천하가 공평무사하게 된다. 어진 자를 등용하고 재주 있는 자가 정치에 참여해 신의를 가르치고 화목함을 이루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부모만을 친하지 않고 자기 아들만을 귀여워하지 않는다. (중략...)

창검과 몽둥이가 춤추며, 총탄이 난무하고, 죄 없는 백성이 무참히 살육당하는 피비린내 나는 참혹했던 광주의 그날은 지옥도(地獄道)나 다름없다. 그런데 왜 많은 이들이 그날의 광주를 두고 대동사회를 떠올리는 것일까?

- 당시를 아름답게 기억하시는 분의 말씀을 들어보자.

"항쟁 당시 광주시민들은 자발적으로 학생들과 시민군들에게 빵과 우유를 나누어주고, 주먹밥을 만들어 공급했다. 그리고 목이 마른 자들에게는 양동이에 물을 받아서 주었고 부상자들을 위해서는 자신의 피를 나누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동정신이 '나눔과 헌신 그리고 희생의 정신'으로 구체화됨을 보여준 사건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5·18정신을 나눔, 헌신, 그리고 희생의 정신으로 정의할 수도 있다.

- '5·18은 나눔입니다.'

1980년 5월의 공간에서 광주는 내 것과 네 것의 구분이 없이 나누었다. 도망자들에게 도피처를 제공하고 배고픈 자들에게 밥을 주었다. 5·18은 '나눔의 현장'이며 '공생의 아고라'였다."

그때 광주는 거대한 위리안치(圍籬安置)의 공간이었다. 그것도 목숨을 담보할 수 없고 고함쳐도 울 밖으로 소리가 전해지지 않는 공포와 전율의 공간이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 대동사회가 열린 것이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닌데 광주시민들은 대동세상을 열었다.

- 그 황홀경을 한홍구 교수는 이렇게 회고한다.[2]

"인류 역사에서 보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지. 무기가 수천 정이 풀렸는데 강도 사건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물자가 부족했지만 아무도 매점, 매석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바로 대동세상이죠. 그때를 생각하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사람을 만나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5·18은 대동사회라는 별천지를 잠시나마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우리는 그것을 현실사회에 구현하되 휘발성 사건이 아니라, 공고하고도 영속적으로 구현하여야 한다.

또한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묵자는 반전운동가로 활동하며 전쟁을 하늘의 뜻을 어기는 반인류적 죄악으로 규정하였다. 반전, 평화사상을 묵자는 입으로만 역설한 것이 아닌, 직접 군부대를 이끌며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성을 방어할 수 있도록 방성(防城) 기구[3]를 만들었으며, 전쟁이 벌어질 당시에는 약소국의 수비를 직접 도맡아 하였다.(중략...) 1980년 광주에서 계엄군의 총포에 맨몸으로 저항했던 시민들, 최소한의 자위권으로 무장했던 시민군은 이 시대의 묵자라 할 것이다.



광주 시민들이 시위대와 시민군에게 건넬 주먹밥을 만들고 있다.

3. 광주를 넘어 세계로

5·18을 꼭 그날(1980년 5월 18일), 그 장소(광주)에서 일어났던 비극으로 가둬두려고 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그런 시각으로 보면 해마다 5월이 되면 그 비극을 슬퍼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위로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고 다짐하고 만다. 물론 그런 일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렇게 가둬둠은 그날 스러져간 분들의 소망과 흘린 피의 의미를 퇴색시키게 된다. 김준태 시인의 시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의 마지막 연을 다시 읽어보자.

---

2) 한홍구, (2010), 지금 이 순간의 역사, 한겨레출판사, 2010. 3.

3) 중국인들이 발명의 신으로 추앙하는 공수반(노반이라고도 함)이 공성 기구인 운제(雲梯)를 만들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묵자도 노반 못지않은 여러 기구를 발명하였고, 중국에서는 2018년 세계 최초의 양자통신 위성을 발사했는데, 묵자의 과학적 업적을 기려 위성의 이름을 '묵자(墨子·Micius)'호라고 함

광주여 무등산이여
아아, 우리들의 영원한 깃발이여
꿈이여 십자가여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젊어져 갈 청춘의 도시여
지금 우리들은 확실히
굳게 뭉쳐있다 확실히
굳게 손잡고 일어선다.

무등산이 불변이요, 의연하듯이 5·18정신도 시대를 초월하여 불변이요, 의연해야 한다. 그래서 영원한 깃발로 나부껴야 한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이지만, 구원의 길이다. 그 길은 진리의 길이다. 예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로 말씀하셨다. 예수의 말씀이 현재진행형이듯이 5·18정신도 현재진행형이어야 한다. (중략...)

제7공화국 수립을 위한 헌법 개정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개정하게 된다면 5·18정신을 전문에 명시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5·18이 1980년 광주에 국한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청춘의 기상으로 우리가 지고 갈 구원의 십자가로 승화하게 되는 것이다.

3·1 독립선언서에 이런 구절이 있다. "동양평화로 중요한 일부를 삼는 세계평화 인류행복에 필요한 계단이 되게 하는 것이니 이어찌 구구한 감정상 문제이리오." 조선 독립이 비단 조선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양 평화의 일부가 되며, 나아가 세계평화로 나아가는 계단이 된다고 했다.

5·18정신은 1980년에 한정된 이념이 아니요, 광주에 한정된 이념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한 이념이요,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한 이념이 되어야 한다.

4. 결론

우리는 3·1운동,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 등 여러 정신 유산을 물려받았다. 모두가 다 눈물과 피가 이뤄낸 고귀한 유산이다. 그런데 5·18이 민주주의 확장과 시민의식 성숙에 이바지했다는 논지의 연구는 많았던 데 비하여 경제성장과 선진화에 이바지했다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여전히 5·18의 역사적 소임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5·18 이후의 체제 변화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올해가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이다. 44년은 짧지 않은 시간이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있고, 5·18을 왜곡하고, 그 정신을 폄훼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여 안타깝다. 그러나 바르지 못한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머지않아 있으리라 예상되는 헌법 개정 시에는 전문 수정도 함께 이뤄질 것이다.

이때 반드시 5·18정신을 명시하여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이 선열의 희생에 바탕하고 있음을 전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감춰진 진실을 밝히는 것 못지않게 그 정신을 선양하고 세계에 전파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최근 5·18국제연구원이 설립되었다. 작게 출범했지만 5·18정신의 국제적 전파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리라고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을 넘어서 5·18을 필요로 하는 세계 곳곳에 그 정신을 심어야 하겠다. 끝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원가입안내

회원가입 자격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소지자

(부상자회와 공로자회 회원이셨던 분이 서거하신 경우
필히 유족회원입회서를 제출해야 함)

가입신청서류

회원등록신청서, 유족증사본 및 초본 1부

회원가입등록처

① 서울지부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56, 운현하늘빌딩 7층

tel. 02-785-0518 fax. 02-786-0518

② 광주중앙회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52(5·18기념문화센터)

tel. 062-383-5180

* 서울지부는 광주와 전남을 제외한 전국 지역을 관할지역으로 합니다. 따라서 경기, 인천, 충청, 대구와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및 전북과 제주 지역에 거주하시는 유족회 가족은 서울지부에 회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